

15대 SBS 본부 출범, 함께 걸으면 길이 됩니다!

제 14·15대 이·취임식 성황리에 마쳐



제 15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SBS, SBS A&T 지부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 4월 5일 저녁 6시 반 목동 사옥 지하 1층 벽천 카페 야외무대에서 제 14·15대 이·취임식과 15대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SBS 본부는 지난달 조합원 선거에서 당선된 윤창현 본부장과 조춘동 수석부본부장(SBS A&T 지부장), 황현표 부분부장(SBS지부 부위원장)으로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신임 사무처장은 한재신 조합원(SBS 시사교양본부), 신임 공방위원장은 이대욱 조합원(SBS 보도본부), 총무국장에는 김기정 조합원(SBS A&T 미술본부)이 선임됐다.

또한 여성위원장은 지연정 조합원(SBS 편성본부)이, 능력급직 위원장은 최영하 조합원(SBS A&T 미술본부)이, 대외협력국장은 최기환 아나운서가, 정책기획국장은 심영구 조합원(SBS 보도본부) 각각 맡기로 했다. 그리고 주범 조합원(SBS A&T 영상본부)이 교육홍보국장을, 노경남 조합원(SBS A&T 기술지원본부)이 후생복지국장을, 하대석 조합원(SBS 보도본부)이 편집위원장을 맡아 집행부를 이끌어 가기로 했다. 15대 집행부는 오는 4월 22일, 23일 강원도 속초에서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현표 부분부장과 한재신 사무처장은 오는 22일 대의원 대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제15대 정기 대의원 대회 소집 공고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다음과 같이 정기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고자 하오니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4월 22일(금)~23일(토)

장소 속초 대명리조트

안건 SBS본부 2015년 주요 활동보고 및 결산·회계보고 승인
- 부분부장·사무처장·회계감사 승인
- 언론노조 파견 대의원 승인
- SBS본부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본부 규약 및 운영 세칙 개정안 승인
- 기타 안건

제54차 전체편성위원회

일시 2016. 4/12 (금) 16:00

장소 본사 20층 대회의실

안건 1) SBS스페셜 <럭셔리블로거 그림자> 논란의 건
2) 시청자위원 추천 관련 건

참석자

사 측	노 측
박정훈 부사장	윤창현 노조위원장
이철호 편성본부장	한재신 사무처장
신용환 시사교양본부장	이대욱 공방위원장
김희남 경영지원본부장	
심상대 심의팀장	
민인식 시사교양국장	
간사: 안범진 편성기획팀장	

“소위 럭셔리 블로거라는 사람들이 연예인 버금가는 인기를 얻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행복하거나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시대를 사는 사회의 한 단면으로 이것을 다뤄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획의도가 프로그램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부문은 충분히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시사 후 논의를 할 때 불방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어떻게든 방송을 내야 되겠다’라는 강박이 컸고, 그게 결과적으로 판단ミス였고 덧붙였다.

시사교양본부장은

“컨트롤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인사평가에 반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는 건 저희 본부에 맡겨주시면 좋겠다.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인사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부사장은 “제작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경고장을 보냈으며, 제작 대표로써 우리 내부구성원과 시청자들에게 실망시켜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2) 시청자위원 추천 관련 건

사측은 지난 2월 18일 임기만료된 시청자위원의 후임으로 배성례 단국대 초빙교수를 추천했다. 노조측은 배성례 피추천인이 당시 최금락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청자위원 자격에 문제 제기를 했다.

이후 배성례 시청자위원의 추천기관인 한국기자협회 확인 결과 기자회견은 배성례 시청자위원 후보를 추천한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시청자위원 해촉요청서를 보내왔다.

사측은 배성례 후보가 기자회견 사무처 간부와 인사하고 추천서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으며, 회사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앞으로 시청자위원의 추천 단체의 대표자 확인을 거치는 방안까지 포함해 추천의 신뢰도를 더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대신 박동주 전 SBS 라디오본부장을 신임 시청자위원으로 추천했으며, 노조측도 박동주위원의 선임에 동의했다.

1) SBS스페셜 <럭셔리블로거 그림자> 논란의 건

노조위원장은 “지상과 방송의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이 같은 방송이 나왔는지에 대해 SBS 구성원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동시에 외부의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편성위를 통해 의문들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편성위원회 개최 요구의 취지를 밝혔다.

공방위원장은 “도도맘이라 불리는 출연자는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데다 수많은 고소고발에 휩싸여 있는 인물이다. 이런 사례자가 그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눈물의 고백 수준의 방송이 나왔다. 방송 전체적인 문제점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 온갖 의심스러운 추측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기획의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사교양국장은



위원장 편지

조합원 여러분, 맡겨주신 무거운 책임을 받아안은 지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아직은 어느 것 하나 익숙한 것 없고 본부장이라는 칭호조차 어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조합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열렸던 이,취임식엔 근래 보기 드물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와 격려를 보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검은 머리가 날 것 같다”고 활기찬 마음을 표현하신 전임 채수현 본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할 때는 지난 2년간의 사심 없는 노고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뜨거워 지기도 했습니다. 15대 집행부가 소중한 성과를 잘 받아 안고 튼실한 과실을 맺도록 열심히 거듭 주겠습니다.

신,구 집행부 이취임 기간과 겹친 총선 일정으로 인해 다소 급박하게 조직된 선거 보도모

니터는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양질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향후 보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SBS 보도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큰 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조직 내에서 큰 논란과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던 SBS 스페셜의 럭셔리 블로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방송편성위원회를 개최해 여러 문제점들을 점검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여러 억측이 사내외로 번지면서 SBS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구성원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상과 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익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편성위를 통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제작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넘어 ‘질’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안팎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재발방지는 물론이고 SBS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오해와 예단들을 차단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자평

합니다.

선거 방송 당일인 지난 13일, 조합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조합원들을 위해 단팥빵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중계 현장과 사내 제작 현장에서 땀 흘리는 조합원들에게 뭐라도 헤드리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일이었는데 너무들 좋아해 주셔서 준비한 조합 집행부가 오히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5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이렇게 조합원들이 계신 현장을 자주 찾을 생각입니다. 방송 현업의 특성상 한 곳에 모이기도 힘들고 그렇다보니 조합이 조합원들의 고충을 듣는 일도, 또 조합원들이 조합이 하는 일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거기서 출발하겠습니다. 한 발씩 같이 걸을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고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하실 수 있도록 명석을 들고 다니며 필요한 곳에서 펼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합의 힘이고 버팀목입니다. 함께 걸읍시다.

공방우리포트

공정방송은 방송의 DNA입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4월 6일 지상파 3사 공방위 간사들과 학계, 언론단체가 모여 지상파 3사 총선보도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토론회였지만 지상파 3사 보도에 대한 자성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확할 정도로 수많은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KBS 경우 노골적인 북풍몰이 방송에 대해 내외부에서 수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KBS 보도국 수뇌부와 사측은 비판에 완전히 귀를 닫았다고 합니다.

MBC는 편향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면 지방이나 보도국 이외의 부서로 발령을 내고 그 자리를 경력기자가 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한다고 합니다.

“한번 쓴소리 하고 현업을 떠날 것이나..아니면

입닥치고 내 리포트라도 제대로 만들 것이나..” 언론학자와 언론단체의 지상파 3사에 대한 평가는 대략 이렇습니다.

- KBS 3사 가운데 최악. 선거보도 자체보다 절망적인 북풍몰이 뉴스에 대해 할 말을 잃는다.
- MBC 복고적인 편파방송 수법 총동원. 이제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십 수년전의 편파방송 수법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군중수와 카메라 각도를 이용한 수법, 싱크와 제목으로 장난치기 등입니다.
- SBS는 기계적 균형에 대해서는 지적할 게 없다.

그러나 ‘나쁜보도’는 없지만 ‘좋은보도’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도 MK 가 무너진 가운데 S라도 균형보도를 지켜줘 다행이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다만, 청와대 기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 등을 전혀 비판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시작한 24일 동안의 사내 총선모니터단의 활동은 공정방송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모두 64명의 조합원이 모니터에 참가해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공방위는 노조원들의 공정방송을 향한 열망을 SBS의 DNA로 장착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와 언론자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국 소위원장

“팽목항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참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유족들 한 명이 있으면, 한 명이 무슨 말을 하면 기자들이 정말 이리 떼처럼 몰려 들어가서 그 유족을 가운데 두고 뺨 둘러앉아서, 막 촬영을 해요.”

조OO(SBS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가족 취재 담당)

“가족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했고, 구조작업이 지지부진하다고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면 그 팩트 취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목소리만 담고 있는데... 데스크에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강OO(KBS 기자)

이 이야기를 전하는 기자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자체 반성 프로그램, 기자협회 총회, 관련 토론회에 나온 기자들은 진심으로 부끄러워했다. ‘언론의 민낯을 드러낸 언

론의 참사’이기도 했던 세월호 참사보도에 대한 되새김들. 언론단체, 시민단체의 강제였던 언론사 스스로의 목소리이건 반성과 자성이 이어졌다. 그러나 2014년 4월 16일 이후 언론의 반성은 그리 길지 않았다.

무엇보다 4월부터 5월까지, 또는 더 길게 팽목항과 현장, 서거차도, 동거차도, 안산을 오가며 현장을 누볐던 기자들의 눈물에 어떤 언론사의 책임있는 이들도 화답하지 않았다. 현장의 ‘전원구조가 사실이 아니라’는 에타는 호소를 묵살한 데스크는 자사 기자의 정보보고를 “출처가 분명하지 않았다”며 폄하했고, ‘해경 비판을 자제하라’했던 모 언론사 사주는 “유가족이 원하는 일”이었다는 거짓 해명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이런 변명조차 속 시원히 하지 못하고, 국회 국정조사조차 거부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기자들과 기자단체들의 자성을 비롯이라도 하는 듯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보상·단원고 특례입학 등은 ‘논란’ ‘갈등’이라는 핑계로 다뤄졌다.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생중계하는 대신 중국관광객들의 치맥파티가 마치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듯 보도했다. 방송사들은 세월호 청문회에 대한 간단한 보도조차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다.

나아가 방송사들은 국민의 열망을 모아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조차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고 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 조사 3과는 특별법 제5조 제4호에 의한 ‘언론의 공정성과 적정성 조사’를 위해 KBS, MBC, SBS 등 주요 언론사들에 자료 요청과 진술청취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KBS는 2016년 1월 8일자 공문에서



노조는 선거 당일 선거방송에 힘쓰고 있는 조합원 격려차 단팥빵 600개를 나눠 드렸습니다.

특조위의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MBC 또한 마찬가지로 회신을 통해 특조위 조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는 특별법의 정신을 저버리는 행위임과 동시에 세월호 참사 당시의 언론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편집권은 ‘언론의 공정성 적정성에 대한 조사’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 2년여 동안 국민 모두를 원죄의식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트위터 등 SNS 상에서 여전히 연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세월호. 그 참사를 보도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언론, 기자들은 진정 언론의 자유를 누렸는가. 과연 정말 어떤 권력과 편견, 이념적 공방들로부터 독립적이었는가. 2년 전 현장 기자들의 눈물을 다시 보며 ‘이제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전의 어떤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던 언론과 명예훼손 영역을 주요한 조사 분야로 담아낸 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SBS본부 상무집행위원회



황현표
부본부장
편집기술팀

“언론은 교양 없는 자들의 의견을 전해줌으로써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우둔함을 깨우쳐 준다” 오스카 와일드의 19세기 냉소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유효한 듯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기는 게 정의가 아닌 정의가 이기는 사회와 회사를 생각해 봅니다.



지연정
여성위원회 위원장
PR팀

“SBS에도 여성 조합원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성들이 좀 더 나은 방송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고민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작은 목소리가 큰 울림이 되도록 조합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대욱
공정방송실천위원장
보도본부

“노조원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진지하게 배우고, 부지런히 행동하겠습니다.”



최영하
능력급직 위원장
CG팀

“며칠 전 뉴스에서 회사대표와 노조위원장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합쳐 큰 성과를 거두고 사장의 정년퇴임식에 노조원들이 박수로 격려하는 뉴스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희망하며 새로운 집행부와 능력급직 처우개선에 힘쓰고, 사원들이 하나가 되는 노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재신
사무처장
교양 4CP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입사한지 13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 모르게 애쓰고 고생한 선배, 후배 그리고 동료들이 있었기에 제가 조합원임을 노동자임을 잊은 채 신나게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SBS 노동조합에서 일 하는 동안, 다른 조합원들이 이렇게 즐겁게 일 할 수 있도록 대신 더 고민하고 더 애써서, 더 나은 방향과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동조합이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SBS는 그 자체만으로 좋은 회사이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일터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조합원 노동자들이 신나게 일 할 수 있는 일터로 남을 수 있도록, 부족한 힘이지만 보태고자 합니다.”



김기정
총무국장
아트1팀

“오랜 시간 헌업만 하다 노동조합의 생소한 업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부담감을 가졌지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땀땀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오솔길이 대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기환
대외협력국장
아나운서팀

“그동안 노동조합을 통해 많은 걸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받을 생각입니다. 노조점퍼, 청소기, 단팥빵... 이외에도 제가 받은 든든함에 아주 조금의 책임감까지 덤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심영구
정책기획국장
미래부

“노동조합 집행부를 맡게 되니 비로소 조합이 어떤 곳인가 새삼 생각해보게 됩니다. 내 일이 즐겁고 가기 싫지 않은 회사, 다닌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터를 만들어가는 조합의 노력에 한 힘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예~”



주범
교육홍보국장
영상취재팀

“어떤 직장보다도 구성원 간에 수평적인 소통을 해야 하는 곳이 방송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직종의 방송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곳인 만큼, 각자의 상황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힘들 때는 나의 일처럼 함께 고민을 나누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미력이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대석
편집위원회 위원장
뉴미디어제작부

“노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올해, 노보가 조합원들 간의 진솔한 소통 창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경남
후생복지국장
제작기술팀

“이번에 후생복지국장을 맡게 된 제작기술 노경남입니다. 후생 복지를 검색해보니 ‘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것을 말한다’라 하더라고요. 시청자들을 위해 제작하느라 정작 자신들을 챙길 수 없었던 조합원들이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조와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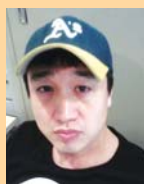
SBS지부 집행부 명단



정호선
부지부장
경제부



김경민
총무부장
편집2부



이승훈
교육홍보부장
라디오 1CP



조지현
후생복지부장
문화과학부



박진성
회계감사
광고팀

SBS A&T지부 집행부 명단



조정영
부지부장
영상제작2팀



김명권
부지부장
제작기술팀



원정식
부지부장
아트3팀



김지완
정책기획부장
보도기술팀



이승열
대외협력부장
영상편집팀



이성훈
총무부장
아트2팀



장성욱
회계감사
CG팀